

미니
인터뷰

전영옥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방역의 최일선은 '농가' 자율적 차단방역 중요

나주·영암 중심 4년째 자율방제단 방역활동
업체와 협약...특별방역기간 동안 소독약 무상 공급



“전남지역에서는 자율방제단을 구성해서 나주, 영암을 중심으로 특별방역기간에 농가가 스스로 자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4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듯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은 물론 지역 전체를 위한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운영 4년째를 맞는 전남지역의 자율방제단은 오리산업을 넘어 전남지역 축산농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명하다.

“올해 방제단 발대식을 조금 늦췄는데 다른 축종에서 왜 빨리 방제를 시작하지 않느냐고 하더라구요. 나주, 영암 지역의 도로 전체를 소독하니까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질병 방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제단은 지난해까지는 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주시지부, 영암군지부에서 자체운동을 시작했다. “지회에서 운영을 할 때는 지회에서 기름값을 지원해주고 시행을 각 지부가 했는데 이제는 지부에서 각자 자체 운영을 하고 지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합니다. 지난해까지 경비가 부족해 농가가 자체적으로 만든 소독기로 방제를 했는데 올해는 한 대에 450만원짜리 소독기를

트럭에 설치해 방제하고 있습니다.”

전영옥 지회장은 방역의 최일선은 농가 스스로의 차단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가 스스로가 차단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남지역의 농가들은 스스로의 방역 활동이 뛰어납니다. 사육제한 농가들은 철새 도래지에 가서 생석회 도포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내 농장, 내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과 소독밖에 없으니까 농가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전남도지회는 최근 한 소독약업체와 협약을 맺고 특별방역기간 동안 소독약 무상공급을 통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농가들의 생각이 예전과는 달라요. 단체 대화방에서 석회를 살포하자고 누군가 말을 하면 동시에 일제히 석회를 살포해 차단 방역율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육제한 해당농가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오리농가들 앞에는 석회와 소독약으로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앞으로도 자율 방역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생각입니다.”